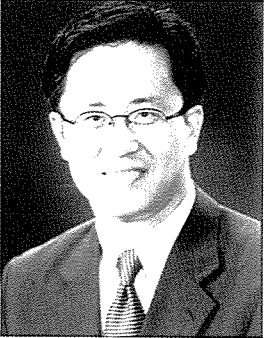


#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의장

우리는 예로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고 하여 지식의 공유에 남다른 가치를 부여해왔다. 이는 오랜 유교문화와 농업사회 공동체 정신의 유산으로, 책을 살 돈이 없어도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절대 꺾지 말라는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 책 도둑은 그야말로 큰 도둑이 된다. 책은 저자의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서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심각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과 무한한 정보수집망을 바탕으로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독특한 공유 문화의 확산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넷 환경은 오히려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이어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해야

지적재산이란 쉽게 만져질 수 있는 사물이 아니므로 생각의 전환 없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보호하지 않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면 지금의 정보화 사회가 가능했을까.

지적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 못하다면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식의 창조에 기여하지 못한 자가 무임승차하여 연구의 과실을 취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결국 자체 지식 생산기능이 마비된 사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지적재산권 관리와 활용에 달려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정부와 민간단체가 앞장서 IT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에서 세계 최강인 한국이 불법복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멎고 있다는 현실은 '디지털 한류(韓流)' 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노력도 물론 중요하나,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 선결돼야 한다. 불법복제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범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민 의식적 차원에서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경제적 수치는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다면 이미 선진국인 것이다. 문화 강국시대, 콘텐츠 시대, 디지털 시대 이러한 거창한 단어로 포장된 지금 우리의 의식은 어디쯤 와있는지 돌아보고, 정품 사용이 바로 애국하는 일이며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또한 국력을 강화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야말로 국가의 귀중한 지적 자산이 된다. 저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이 시기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산업에 대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